

NEWS

2025년 5월 20일 화요일

전남 김, 월마트 등 미국 대형유통망 진입

광주관광공사 국제인문워크 28~30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인공지능(AI) 시대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민주·인권·평화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광주에서 펼쳐진다.

광주관광공사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인공지능 시대, 인간다움을 묻다'를 주제로 2025광주 국제인문워크가 열린다고 19일 밝혔다.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인류의 보편 가치인 민주·인권·평화의 의미를 조명하는 이번 인문워크는 인문학을 통해 기술과 사회의 공존 가능성을 논의한다.

개막일에는 세계적 인공지능 윤리학자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토비 월시(Toby Walsh) 교수가 '인공지능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사회의 대응'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대답에서는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인공지능 시대에 새롭게 정의되어야 할 인권의 경계를 진단한다.

이어 '인공지능과 교육·민주주의·미래 사회' 세션을 통해 인간 중심 교육의 방향성, 여론조작, 알고리즘 정치 기술, 공생 가능한 사회 구조와 거버넌스를 모색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전남도, 전략작물직불금 접수 31일까지...신규작물 6개 추가

전남도는 하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금 제도는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 등을 위해 논에 보리, 밀 등 동계작물이나 하계작물로 두류, 옥수수 등을 재배할 때 직불금으로 농업인(법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계 전략작물은 두류, 가루쌀, 옥수수, 깨, 조식료 등이다. 지원 대상은 논에 하계 전략작물을 0.1ha 이상 재배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농업법인이다.

ha당 지급단가는 옥수수·깨 100만원, 두류·가루쌀 200만원, 조식료 500만원이다. 또한 겨울철에 밀, 조식료를 재배하고 여름철에 두류, 가루쌀을 이모작 재배하면 추가로 ha당 1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올해부터 신규 하계 전략작물로 깨(참깨·들깨)를 재배하면 ha당 100만원의 직불금을 받는다. 하계 조식료 지급단가는 4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됐다.

직불금은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하고, 7~11월 신청농가 대상으로 자격검증과 이행점검을 거쳐 12월께 지급한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지역 수산식품업체 '해농'·미 기업 '카네야마' 1000만 달러 수출·미국 시장 공동진출 MOU

전남도는 지역 대표 수산식품기업인 ㈜해농(대표 조명추)이 미국 뉴저지의 식품 유통사인 카네야마(KANEYAMA USA·대표 최재홍)와 1000만달러 수출 및 미국시장 공동 진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국 대형 유통망인 월마트(Walmart USA)를 비롯한 현지 유통

채널을 통해 전남 김 제품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고품질 마른 김, 조미김 등 해조류 가공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현지 유통 활성화가 핵심 내용이다.

이번 협약은 미국 월마트 등 대형 유통망 진입, 전남 김의 글로벌 수출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해농이 생산하는 고품질 마른김, 조미김, 김밥김 등의 제품

을 중심으로 총 1000만달러 규모의 납품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농은 품질이 보장된 김 제품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을, 카네야마는 미국 시장 내 판로 개척, 마케팅, 유통을 담당하며 제품 포장, 통관, 물류 등도 공동 협의체를 통해 긴밀하게 조율할 계획이다.

카네야마는 월마트, 크로거(Kroger) 등 미국 내 대형 유통망에 다양한 아시아인 푸드 제품을 공급하는 프리미엄 유통기업이다. 소피 어워드(Sofi Awards) 수상(김밥김 부문 1위) 이력을 가진 유망 바

해농은 2004년 창립 이후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품질 개선으로 2024년 기준 연 매출 705억원, 수출 1000만달러를 달성한 전남 대표 수산식품 수출기업이다. 나주와 목포 사업장에서 총 136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 중 40여명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김밥 제품군을 운영 중이다.

전남도는 김 수출 확대를 위해 농수산물 수출 직불금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김 수출 제품에 대한 중금속 안정성 검사비, 해외반출 지원 등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이같은 지원에 힘입어 2025년 4월 현재 전남도 김 수출은 전년보다 17.3% 증가한 2억7500만달러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김 산업은 전남 수산업의 핵심 성장축"이라며 "이번 협약은 전남 김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북미시장 진출을 위한 안정적인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서구,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현장점검 실시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19일 서구 서창천 산책로와 사방댐 등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인명피해 우려지역 현장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서구

푸른길공원~ACC 서남로에 '대자보' 입힌다

보도폭 확장·시설물 최소화 등 가로경관 반영 동구 "친환경 녹지공간 조성·보행도시 대전환"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푸른길공원을 연결하는 서남로(동구청~조선대사거리)가 누구나 쉽게 '대자보' (대중교통·자전거·보행)를 즐길 수 있는 길로 조성된다.

19일 동구 등에 따르면 동구청~조선대사거리 구간 도로 왕복 5차선 확장공사는 총사업비 142억원이 투입되는 도심지 도로망 기능 개선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수관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다.

동구와 광주종합건설본부는 지난 2월 동구청~조선대사거리 구간을 시민들이 찾는 대자보 시범구간으로 만들기 위해 가로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조성 방안의 주 내용은 보도폭 확장, 도로부·보도부 단차 최소화, 자전거전용차로 설치, 보도 내 시설물 최소화를 위한 통·자전거·보행)를 즐길 수 있는 길로 조성된다.

광주종합건설본부는 동구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인 보도 확장, 인도와 자전거도로 구분, 2열 나무 심기 등을 반영한 가운데 시민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통해 푸른길 연장과 동구 녹지네트워크 연결을 보여줄 수 있는 경관이 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구는 앞으로 푸른길~동구청(서남로)~ACC~웨딩의 거리(서서로)~광주

천 구간을 대자보 거리로 만들 예정이다. 특히 예술의 거리(서서로)로 ACC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공간감이 연출되는 가로경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ACC와 광주읍성터의 일부인 도로 인을 알릴 수 있도록 디자인 패턴화를 적용하며, 야간에 안전 진입을 위한 조명명을 설치한다.

인문도시동구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알려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며, 보행자를 위한 휴게공간도 구축한다.

동구 관계자는 "사람 중심의 보행 도시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주차타워 건립을 이룬 시일 내 재개하고, 청사 주차장을 전면 공원화해 주민에게 심터를 제공하는 등 대자보 도시 조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5·18기록물 보존시설' 설계 당선작 선정 종합건축사무소 '창', 작품 '기억에서 기록으로'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수장고의 확충을 위한 '5·18기록물 보존시설' 설계 공모에 종합건축사무소 '창'의 '기억에서 기록으로' 작품을 당선작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계공모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추진됐다. 현재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의 수장고는 만 고율이 95%에 달하는 등 추가 기록물 보관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체계적 보존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수장고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고, 광주시는 사업비 433억여원을 투입해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미래 세대 전승을 위한 현대화 사업인 '5·18기록물 보존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 건립하는 보존시설은 서구 치평동 5·18민주화운동교육관 부지에 연 면적 6600㎡,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다. 수장고, 전시실, 사무공간 등 시민친화적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개관 목표는 오는 2028년이다.

당선작인 '기억에서 기록으로'는 주

변 환경과의 조화, 상징성 있는 형태 계획, 입면 디자인의 창의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작품은 5·18기록물을 통해 5·18이 단순한 지나간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연결한다는 기회의도를 받았다.

이번 설계공모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추진됐다. 현재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의 수장고는 만 고율이 95%에 달하는 등 추가 기록물 보관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체계적 보존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수장고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고, 광주시는 사업비 433억여원을 투입해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미래 세대 전승을 위한 현대화 사업인 '5·18기록물 보존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모 선정된 설계업체는 앞으로 420일간 설계용역을 수행하게 된다.

김호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보존시설 신축은 미래세대가 오월정신을 직접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이 되어 한다"며 "앞으로도 기록관은 당선작을 통해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주변 5·18 관련 시설들과 집적 공간을 형성해 오월정신의 계승과 세계기록유산에 걸맞은 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5·18기록물 보존시설 조감도

경찰청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